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2년도 제8호

**체육시민연대 2022년도**  
정기총회 개최 안내  
2022.02.28(월) 20:00  
비대면 ZOOM

###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윤리센터, '이의신청 제기' A종목 심판 징계**

김용석 뉴스핌 기자

### **뉴스해설**

**은메달을 바라보는 달라진 시선**

정재용 KBS 기자

### **대한체육회**

**도쿄올림픽 양궁 여자 대표팀, 대한체육회 체육대상 수상**

서대원 SBS 기자

### **대통령 선거**

**이재명 윤석열, 체육정책만 본다면 누구 찍을 것인가**

김세훈 스포츠경향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 체육시민연대 2022년 정기총회

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소통과 만남에 장애가 되었지만

대한민국 스포츠 변화를 위한 체육시민연대의 노력은 멈출 수 없습니다.

반성과 성찰, 미래를 위한 준비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 2월28일(월) 저녁 8시-9시**

**장소 : 비대면 ZOOM**

(<https://cau.zoom.us/j/85731350610>)

- 사업 및 회계 보고
- 감사보고
- 2022년 사업 계획
- 임원 선출 및 집행위 인준 등

2022년 2월

체육시민연대

# 스포츠윤리센터, '이의신청 제기' A종목 심판 징계

스포츠윤리센터가 '2022년도 제2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윤리센터는 지난 2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심의위를 열고, 스포츠인권 소위원회에서 10건, 스포츠비리 소위원회에서 7건을 의결하는 등 상정된 17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심의위는 특히 '전국 A대회 편파판정 및 이의신청 부당처리 의혹 건'과 관련하여, 피신고인 B씨에 대해 '징계 요청'을, A종목단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B씨는 전국 A대회 결승경기 심판장으로, 편파적인 판정을 내리고 부당하게 이의신청을 처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윤리센터는 ▲당시 결승경기에서 한 선수의 출발이 다른 선수보다 확연하게 빨랐던 점, ▲출발심판이 B씨에게 '한 선수가 먼저 출발한 것 같다'고 보고한 점, ▲이후 B씨가 이와 관련한 이의신청을 받았으나 사실상 거부하는 듯한 표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B씨의 이의신청 부당처리 혐의를 일부 사실로 판단했다. 반면, 편파판정의 경우,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심의의결 사안에서 제외했다.

또, 심의위는 'C협회 직원의 보조금 횡령 건'과 관련하여, 피신고인 D씨에 대해 '징계 요청'을 의결했다. 조사 결과, D씨는 C협회의 직원으로 재직하며 임시직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해당 인건비를 가로챈 사실이 확인됐다.

최동호 심의위원장은 "A종목의 경우, 공식 영상 자료와 전자 계측 등의 시스템이 없어 오심이나 편파판정 시비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며 "중계 화면 영상을 공식 판정의 근거로 인정하고, 영상전자계측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체육 단체에서는 아직도 횡령이 계속되고 있다"며 "C협회 보조금 횡령 사건의 경우, 피신고인이 지인 계좌로 인건비를 송금하고 다시 자신의 배우자 계좌로 돈을 빼돌렸다는 점에서 횡령 의도가 명확하다"라고 징계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윤리센터는 심의위에서 '징계 요청'의결한 사건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송부하고, 문체부 장관은 해당 종목 단체에 윤리센터 의결대로 처분하도록 요구한다. '수사의뢰' 사건은 윤리센터가 담당 수사기관에 직접 수사를 의뢰하며, '속행' 사건은 담당 조사관의 추가·보완 조사를 거쳐 다음 심의위에 상정된다.

한편, 윤리센터는 올해 들어 2차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모두 35건의 사건을 의결했다.

# [뉴스해설] 은메달을 바라보는 달라진 시선

전 세계 91 개국 2천9백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17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일부 종목의 편파판정 논란 등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모두들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선 승패에만 집착했던 과거와는 사뭇 달라진 장면이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은메달, 동메달을 딴 선수들의 환한 미소였습니다. 국민들도 금메달 못지않은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는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비판하고 질책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도쿄 올림픽과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은메달, 동메달은 더 이상 패배가 아니라 또 다른 승리의 상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태극기를 활짝 펼쳤던 빙속의 차민규 선수와 유쾌했던 쇼트트랙 대표팀의 은메달 세레모니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동메달을 딴 선수나 입상권에 들지 못한 선수에게도 국민들은 한결같은 환호와 갈채를 보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도전하고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펼친 선수들은 모두가 승자였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스포츠는 이제 '1 등 지상주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금메달만 딸 수 있다면 폭력과 비리 등 어떤 희생도 감내해야 했던 '금메달 지상주의'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합니다.

선수들 인권은 철저히 보장돼야 합니다.

규칙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 도전한다면, 금메달이 아니더라도 국민들은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도전하고 공정한 경쟁을 펼친다면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도전의 기회가 열린다는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폐쇄적 환경과 홈팀 텃세 속에 우리 대표팀은 4년 전 평창보다 훨씬 힘겨운 올림픽을 치렀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당당히 승부를 겨룬 우리 대표팀에게 아낌없는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 우리 사회가 '1 등 지상주의' '금메달 지상주의'를 벗어나고, 한층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도쿄올림픽 양궁 여자 대표팀, 대한체육회 체육대상 수상

지난해 2020 도쿄하계올림픽에 출전한 양궁 여자 국가대표팀이 대한체육회 체육상의 대상 격인 체육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대한체육회는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도쿄올림픽까지 올림픽 여자 양궁 단체전 9연패를 달성한 국가대표팀을 68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체육대상 수상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산, 강채영, 장민희로 구성된 우리 팀은 올림픽 9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했고, 특히 안산은 단체전과 혼성 단체전, 여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우리나라 하계올림픽 출전 선수로는 처음으로 3관왕에 올랐습니다.

체육회는 지난해 11~12월 체육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받아 사전심사위원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24일 이사회에서 수상자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경기 부문 최우수상은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의 만형 김정환과 여자배구대표팀이 공동으로 수상합니다.

김정환은 도쿄올림픽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후배들과 힘을 합쳐 금메달을 수확했고, 개인전에서는 2회 연속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에이스 김연경을 앞세운 여자 배구는 2012 런던올림픽에 이어 도쿄에서도 4강 신화를 썼습니다. 도쿄올림픽 남자 양궁 2관왕 김제덕과 육상 남자 높이뛰기에서 4위에 오른 이상혁, 태권도 은메달리스트 이다빈 등은 우수상을 받습니다.

대한체육회 체육상은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해 체육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체육 진흥을 도모하자는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올해에는 경기, 지도, 심판, 생활체육 등 8개 부문에서 9개 단체, 108명이 상을 받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뮤즈라이브에서 열립니다.

# 이재명 윤석열, 체육정책만 본다면 누굴 찍을 것인가

3월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내놓은 체육 관련 정책은 세부 사항은 다소 달라도 전반적으로 대동소이하다.

이 후보 주요 공약은 △집, 직장 15분 거리 생활 밀착형 스포츠 향유 환경 조성 △체육인 공제회 설립 및 스포츠 클럽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방 체육 재정 확충 및 지역 특화 종목 육성 △스포츠산업, 미래산업 육성 △어르신과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이다.

윤 후보는 △국민스포츠권 보장,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전문체육시스템 구축 및 체육 재정 확대 △유치원·어린이집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파견, 초등 방과 후 스포츠활동 강화 △스포츠팀 창단·운영 기업 인센티브 확대 △e스포츠 육성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제목은 약간 다르지만, 세부 내용은 많은 게 중복된다. 체육시설 확충, 체육인복지확대,파크골프장 확충, 학교체육 및 스포츠활동 강화, 운동부 운영 기업 혜택, e스포츠 육성 등이 그렇다. 체육인복지확대는 '체육인복지법'이 오는 8월 시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정책이라고 보기 힘들다. 체육 재정 확대는 중앙 정부 재정을 늘리기보다는 국민체육진흥투표권(토토) 수익금을 체육계에 더 배분하겠다는 방법론을 양측이 거의 비슷하게 제시했다.

두 후보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핵심 정책은 물론 있다.

이 후보는 '스포츠 참여 포인트' 도입을 약속했다. 운동하면서 적립한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국민에게 주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경기도를 중심으로 육성한 지역화폐를 조금 더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도 담겼다. 관건은 운동 이력을 어떻게 측정하고 검증하느냐다. 이 후보는 운동 이력 관리를 위해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디바이스 간 측정 오차가 크다. 저렴한 디바이스는 성능이 떨어지는 중국산이 대부분이다. 미국, 국산 제품은 성능은 괜찮지만 무척 비싸다. 이걸 국민에게 준다면 엄청난 세금이 소요된다. 또 측정 오차를 줄이려면 동일한 디바이스로 통일해야 한다. 특허시비, 편법논란이 일 수 있다.

윤 후보는 '국민 스포츠 인센티브' 도입을 약속했다. 운동량에 따라 의료비 절감분을 건강보험료로 환급해주겠다는 게 골자다. 동시에 실내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공약 또한 운동량을 어떻게,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지가 의문이다. 윤 후보 정책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결국, 실내시설을 사용한 이력으로 운동량을 집계할 가능성이 크다. 운동량을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시에 실외에서 운동하는 사람과 형평성에서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윤 후보 측은 "실내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사상 처음 나온 공약"이라고 말했다.

다음 장 계속

체육 관련 정부 조직 개편 정책은 이 후보만 내놓았다. 이 후보는 '국가스포츠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정부 부처 간 산재한 체육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구라고 이 후보 측은 설명했다. 이 공약은 지난 21일 시행된 '스포츠기본법'에 따라 구성되고 있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와 많은 게 중복된다. 지난 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 스포츠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교육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도 위원으로 참석한다. 이와 동시에 문체부 2차관,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차관조정회의도 열리게 돼 있다. 이 후보가 공약으로 내놓은 국가스포츠위원회가 신설될 경우, 가동을 앞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와 주요 업무가 상당 부분 중복될 수밖에 없다. 윤 후보 측은 "스포츠기본법에 따라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게 의무화됐다"며 "그곳이 부처 간 산재한 체육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문 체육 육성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뤘다. 2019년부터 체육계 반발을 사온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에 대해서도 재검토 후 현실에 맞게 수정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공공스포츠클럽 공약이 거의 없다. 공공스포츠클럽은 앞선 정부가 추진한 주요 체육 정책 중 하나다. 윤 후보는 전문체육 시스템을 강화하고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이 후보와 차별성을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이 후보는 중앙 정부의 강한 행정력과 적잖은 국가재정 투입을 전제로 한 복지 중심 공약을 주로 내놓았다. 먼 미래보다는 현실과 가까운 미래에 무게감이 실린 정책들이다. 반면, 윤 후보는 복지 공약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인 반면, 유아·어린이 운동, 아웃 도어·레저스포츠를 강조했다. 관리·유지보다 성장·확장에 초점을 둔 셈이다.

좋지 않은 시선을 받는 정책도 있다. 양측이 똑같이 어르신 표심을 잡겠다며 내놓은 파크 골프장 확충이 그렇다. 물론 파크 골프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환경, 인구 구조 등에 맞춰 개별적으로 할 일이다. 그걸 중앙 정부가 국가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정치권이 부동산·건설업자와 유착하면서 비리가 생길 공산을 배제할 수 없다. 양측이 역시 똑같이 강조하는 e스포츠 지원과 스포츠 빅데이터 관련 사업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잖다.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민간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국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같은 미래산업 후보군에 정부가 깊이 관여할 경우, 정부 영향력이 너무 커지고 정부 조직만 방대해지면서 민간 산업계 자생력과 글로벌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수도권 대학 스포츠 관련 학과에서 일하는 한 교수는 "미래 산업군에 정부가 너무 깊숙하게 관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선에 승리한 측에서 전리품 나누기와 공공기관장 보은은사 등이 판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 주간 스포츠 소식

"스포츠 비리, 꼼짝마" 제주 감찰단이 뜬다

<http://www.jibs.co.kr/news/articles/articlesDetail/21079?feed=na>

`소수자 인권 · 감수성` 그들의 외침을 담다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90010>

FIFA,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 제재 만장일치 결정... 제재 수위 논란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006>

경상남도체육회, 스포츠인권향상위원회 출범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20225010006509>

[우크라 침공] 베이징 올림픽서 반전 메시지 전한 선수 '무기 들고 항전'

<https://www.yna.co.kr/view/AKR20220228070600007?input=1195m>

[사진톡톡] 우리도 국가대표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224162200013?input=1195m>

美여자축구대표팀의 성공적 투쟁, 선구자 킹 여사가 있었다[문상열의 부시리그]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101186?ref=naver>

잊지 못할 베이징 올림픽 8가지 장면 '픽!'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459>

'금메달 집착' 벗어던진 올림픽, 더 큰 감동 느꼈다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812057&CM](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812057&CM)

[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812057&CM_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